오늘인 입니다

“모델은 내 자신… 누구에게나 모델은 깃들어 있어”

한지성(모델아카데미 대표)

천인보(603/1000)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Q.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 모델 교육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획이나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성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 모델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A.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한 25년 정도 일해왔고 꽤 오랜 시간 몸을 담고 있습니다.

Q. 광주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지금까지 방송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서울이나 중앙이라고 말하는 서울권에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지역에서도 방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있어서 모델이나 연기 같은 관련 콘텐츠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교육하거나 좀 더 뭔가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대략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Q.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모델 지망생들과 수도권에 있는 지망생들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A.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환경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면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주로 여러 컬렉션이나 관련한 방송 같은 여러 미디어들이 워낙 그쪽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에너지나 돈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갈 수 있도록 광주에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생겨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Q. 광주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광주만큼 정이 많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을 표현하는데 겉으로는 되게 세다라고 얘기하지만 속 깊은 정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속 깊은 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주가 훨씬 공동체 문화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 문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큰 포텐이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있거든요. 아직은 좀 더딘 거 같긴 한데 분명히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연극 극단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모델들의 다양한 진로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동향 자체가 모델들 같은 유니크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모델들에게 활동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평소에 쉬실 땐 무엇을 하실까요?

A. 무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더 휴식이 되기도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만 움직일 뿐이에요. 가끔씩 뭐 드라이브하고 음악도 자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저만의 휴식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뭘 한다고 해서 막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나 오로지 휴식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A. 인생 학교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정해보는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동안 경험해 오고 또 나름 쌓여온 연륜들을 뭔가 인생학교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곳에서 경험하는 기회도 만들고 또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중심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올해부터 조금씩 출발할 예정입니다.

Q. 모델은 [ ]다.

A. 모델은 [내 자신]이다. 누구에게나 다 모델은 깃들어 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모델이라는 그 마인드로 살다 보면 모델로서의 자세나 모델로서의 마인드나 자신감 같은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현 기자·사진=나건호 기자

작가 에세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할 공간 ‘단골집’

임인택
수필가
광주전남문인협회 회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할 공간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 온기를 만들어 준 사람들도. 그냥 술 한 잔, 밥 한 끼가 아니었던 식당. 가만히 눈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소주 한잔하고 싶을 때, 그럼 그곳에 갈까?. 우리들의 약속 장소였던 그 식당.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 그곳에서 매만졌던 술잔이며 식기들.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 표정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항상 앉았던, 우리를 위해 늘 비워줬던 그 자리. 눈을 감으면 문득 떠오르는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도 가슴이 저리는 것은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단골집 식당이 사라졌다. 그 식당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사소한 즐거움 하나를 잃어버렸다. 약속을 잡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낯익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우리의 얘기에 끼어들며 빈 술잔을 채워주던 정을 따르고 정을 주며 함께 했던 그 젊은 친구들. “그대로죠?” 초로의 식당 주인아주머니가 묻는다.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많은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예전의 당신들이 존재한다고, 그 사실이 내 눈에 보인다고 서로에게 일러주는 일이다. 그 찌개와 그 김치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다. 정갈하고 시간의 무게가 실린 그릇에 담긴 반찬들. 가짓수를 채우기 위해 손이 가지 않은 음식으로 식탁을 가득 채운 상차림보다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가 깨끗한 그릇에 담겨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 같은 소주 한잔이지만 어디서 누구와 마시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다. 우리는 더는 동네 소식과 따스한 안부와 위로를 먹던 그 식당의 음식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골목이 사라지자 구멍가게가 없어졌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편의점이 생겼다. 그 많던 단골집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식당 빵집 과일가게 정육점 문방구 사진관, 가게 이름을 하나씩 불러본다. 주인장 얼굴과 가게 안팎이 눈에 선하다. 모든 단골집에는 적어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오래된 주인과 오래된 자리다. 그래야 단골이 생긴다. 더불어 사는 사람살이를 향기롭게 하던 작은 공간들이 그렇게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꾹꾹 눌러 담은 윤기 나는 밥과 맛깔스러운 된장찌개 내주던 할머니 백반집도 사라지고, 알싸한 고향 바다 냄새를 풍기며 한겨울 한기를 달래주던 해물탕집도 사라졌다. 고개를 내밀어야 보이던 대폿집도 사라진 지 오래다.

“사람들이 굳이 단골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친구가 없는 삶이 삭막한 것처럼, 단골집이 없는 삶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단골집은 노동과 휴식, 일터와 집 사이에 있는 경계의 장소다. 기억과 기억을 이어준 작은 발자국들. 단골집이 없어진다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사소한 위안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굳이 단골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친구가 없는 삶이 삭막한 것처럼, 단골집이 없는 삶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단골집은 노동과 휴식, 일터와 집 사이에 있는 경계의 장소다. 단골집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좋은 장소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리적 허기를 채우는 행동만이 아니라 정서적 허기를 채우려 먹기도 한다. 구원과 위안은 미래의 원대한 것보다 오늘의 작고 사소한 것들에게서 온다. 식당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뀔까만,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늘 눈물 나게 한다. 기억과 기억을 이어준 작은 발자국들. 단골집이 없어진다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사소한 위안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 동네 식당에 드나들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한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것이다. 옛 마을은 그렇게 상전벽해가 되었다. 집도 사람도 새로워졌다. 오래된 것에서는 사람 냄새가 났지만, 새로운 것에서는 공장 냄새가 난다.

오늘은 문득 소주 한잔하며 닫혀 있던 가슴을 열고 감춰온 말을 하고 싶은 친구가 보고 싶고 기다려진다. 부르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큰 행운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소주잔 속에 못다 한 얘기가 농축돼 술이 더 달고 맛있다. 때론 소주 한 잔의 여유 속에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 굳이 인연의 줄을 당겨 묶지 않아도 관계의 틀을 짜 넣지 않아도 술잔이 비어갈 무렵 따스한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은 문득 별다른 멋이 없어 더 멋진 그런 친구가 그리워진다. 살다 보면 만나지는 인연 중에 닮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어, 거기서 만날까?” 하다, 갈 곳이 없다. 이젠 길에서 만나 갈 곳을 정하는 뜨내기가 되었다. 나이 먹은 우리를 반겨줄, 언제쯤 다시 그런 단골집이 생길지.